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연내 금리 인하 및 관세 협상 연장 기대감에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6일(목) 미 증시는 트럼프의 연준의장 조기 지명 전망 속 금리 인하 기대감 부각,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 엔비디아 신고가 재경신 등의 영향으로 3대 지수는 상승(다우 +0.94%, S&P500 +0.80%, 나스닥 +0.97%).

개별 종목별 움직임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으나, 점차 트럼프와 연준 관련 뉴스플로우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 전일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 영국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없는 가운데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한 가능성 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 실제로, 유예 기간이 연장될 경우 최근의 기술주 강세를 뒷받침할 기제로 작용할 전망. 다만, 이는 트럼프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만큼 7월 9일(상호관세 유예 시한) 이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필요.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의 연준 의장 조기지명 소식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케빈 워시, 케빈 해싯, 스콧 베센트 등)을 올여름 혹은 9~10월까지 조기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트럼프의 압박 속 연준 의장 교체설은 연준 독립성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 투자자로 하여금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실정. 실제로, Fed Watch 상 연내 금리 인하를 3번(25bp씩) 인하할 확률이 지난 5월 23일 22.6% → 현재 47.7%까지 상승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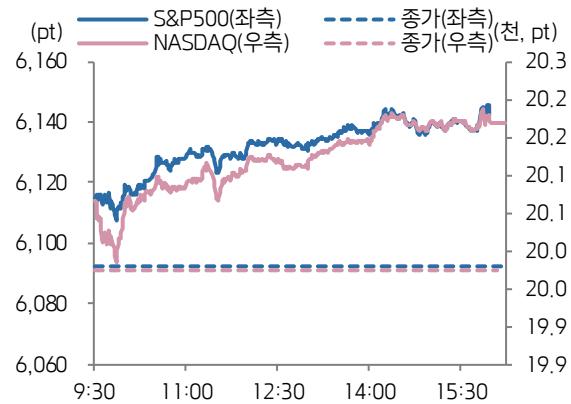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미국 1분기 GDP 확정치도 전월 잠정치(-0.2%) 대비 하락한 -0.5%를 기록, 3년 만에 분기 기준 역성장. 주간 단위로 집계되는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21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197.4만 건 기록. 최근의 경제 지표는 경기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완만한 경기 둔화 시그널을 점진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흐름.

트럼프의 연준의장 조기 지명 가능성, 실물 경기 지표 부진 등은 시장 금리 하락과 달러화 약세로 연결(미국채 10년물 금리 4.24%, 달러화 지수 96.9). 특히, 달러화 가치는 96pt선까지 내려오며 지난 3년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 한편, 최근 연준위원들 내에서도 금리 인하 단행 시점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PCE 물가(27일) 및 비농업 고용(3일) 데이터에 대한 시장 민감도 높아질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마이크론 호실적에 따른 반도체 상승에도 단기 가격 부담(3,100Pt) 인식 속 외국인과 기관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개인 투자자 중심의 저가매수세 유입된 결과 낙폭 축소한 채 마감 (코스피 -0.92%, 코스닥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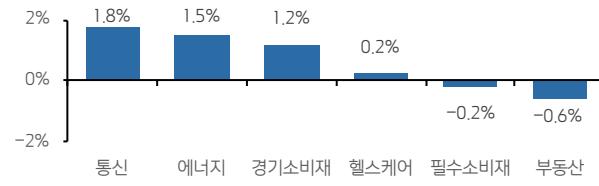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부각,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인 속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한편, 전일 국내 증시의 하락분은 월말/분기말/반기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수요에 따른 수급적 요인이 컸다고 판단. 당분간 국내 시장 흐름은 업종 내 순환매 중심으로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에는 시장 금리 하락 속 6월 한달 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헬스케어(6월 수익률 +0.8% vs 코스피 +14.2%, 코스닥 +7.3%) 업종에 주목해볼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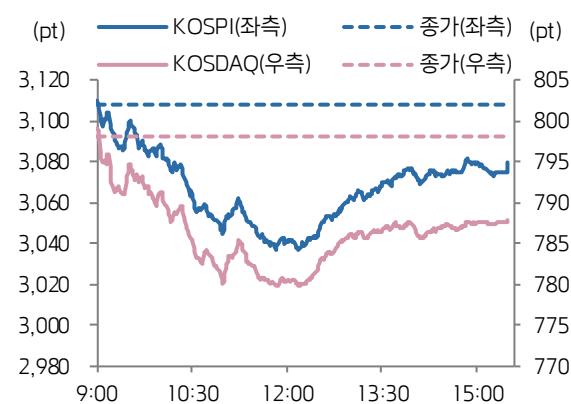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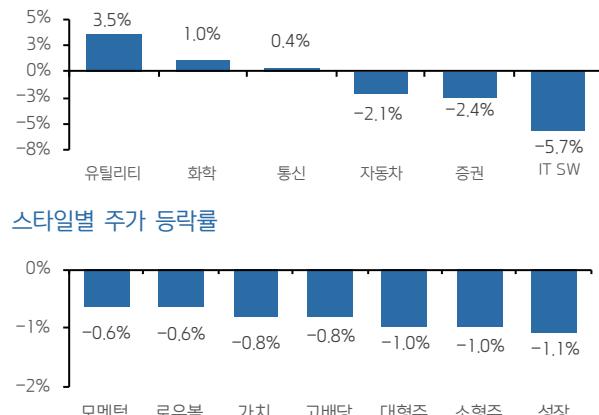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01.00	-0.28%	-19.54%	GM	49.16	+2.14%	-7.19%
마이크로소프트	497.45	+1.05%	+18.47%	일라이릴리	795.12	+0.36%	+3.38%
알파벳	173.54	+1.68%	-8.11%	월마트	96.02	-1.27%	+6.83%
메타	726.09	+2.46%	+24.22%	JP모건	288.75	+1.65%	+21.83%
아마존	217.12	+2.42%	-1.03%	엑손모빌	109.99	+1.49%	+4.11%
테슬라	325.78	-0.54%	-19.33%	세브론	144.44	+0.84%	+2.06%
엔비디아	155.02	+0.46%	+15.46%	제너럴일렉트릭	96.02	-1.3%	+6.8%
브로드컴	270.17	+2.09%	+17.16%	캐터필러	381.88	+2.77%	+6.17%
AMD	143.68	+0.2%	+18.95%	보잉	202.58	+1.85%	+14.45%
마이크론	126.00	-0.98%	+49.91%	넥스트에라	70.99	+0.9%	+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079.56	-0.92%	+28.34%	USD/KRW	1,352.90	-0.61%	-8.11%
코스피200	415.66	-0.92%	+30.78%	달러 지수	96.94	-0.41%	-10.31%
코스닥	787.95	-1.29%	+16.18%	EUR/USD	1.17	+0.36%	+13.01%
코스닥150	1,280.72	-1.14%	+13.36%	USD/CNH	7.16	-0.13%	-2.37%
S&P500	6,141.02	+0.8%	+4.41%	USD/JPY	144.42	-0.56%	-8.13%
NASDAQ	20,167.91	+0.97%	+4.44%	채권시장			
다우	43,386.84	+0.94%	+1.98%	국고채 3년	2,450	-1.2bp	-14.5bp
VIX	16.59	-1.01%	-4.38%	국고채 10년	2,775	-4.5bp	-9.6bp
러셀2000	2,172.11	+1.68%	-2.6%	미국 국채 2년	3,719	-6.1bp	-52.2bp
필라. 반도체	5,541.46	+0.88%	+11.28%	미국 국채 10년	4,242	-4.9bp	-32.7bp
다우 운송	15,331.32	+0.8%	-3.55%	미국 국채 30년	4,800	-3.1bp	+1.9bp
상해종합	3,448.45	-0.22%	+2.88%	독일 국채 10년	2,569	+0.4bp	+20.2bp
항셍 H	8,803.83	-0.63%	+20.77%	원자재 시장			
인도 SENSEX	83,755.87	+1.21%	+7.19%	WTI	65.24	+0.49%	-6.12%
유럽, ETFs		가격	DTD(%)	금	67.73	+0.07%	-9.26%
Eurostoxx50	5,244.03	-0.15%	+7.11%	금	3,348.00	+0.15%	+23.23%
MSCI 전세계 지수	902.15	-0.1%	+7.23%	은	36.59	+1.33%	+25.13%
MSCI DM 지수	3,950.11	-0.2%	+6.53%	구리	506.60	+3.02%	+25.82%
MSCI EM 지수	1,220.72	+0.73%	+13.5%	BDI	1,665.00	-0.95%	+67%
MSCI 한국 ETF	71.94	-0.59%	+41.36%	옥수수	404.00	-0.25%	-8.7%
디지털화폐		가격	DTD(%)	밀	536.75	-1.42%	-7.62%
비트코인	107,811.59	-0.03%	+15.04%	대두	1,016.50	-0.2%	-0.85%
이더리움	2,446.34	+0.27%	-26.9%	커피	305.65	+0.38%	+1.2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알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